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며 만족하게 마시고 여러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9월 4일 (토) 제 184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난민과 교회위해 금식/기도 하자!”

BBC/FAI, 현재 아프간 난민탈출상황과 탈레반의 기독교인 박해현장 보도

탈레반이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축출된 지 20년 만에 국가를 재 장악하자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인접국가에는 난민 220만 명이 있고, 아프간 국경 내에도 지속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결과로 집을 떠난 350만 명 이상이 있는 상황이다. 난민의 전체 규모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의 주요 국경 통과 지

점을 통제 중이며 아프간인들의 국외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인 또는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사람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대변인은 지난 20일 "아프간인 대다수는 정규 경로를 통해 국외로 나갈 수 없다"며 "현재까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탈출구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Afghanistan: Where will refugees go after Taliban takeover?).

현재 일부 아프간 난민은 해외로의 이동 방법을 찾아냈다. 수천 명의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의 카불 점령 직후 파키스탄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00명 가량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국경 근처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에서는 현재 아프간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공항으로 필수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는 탈레반 점령 후 1만8000명 이상이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국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프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안정과 갈등을 겪어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에만 탈레반의 카불 재장악 이전까지 내전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이 55만 명에 달한다.

현재 아프간 내 실향민은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프간 내 피란민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20만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주변국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아프간은 올해 국가 전역에

서 심각한 가뭄과 식량 부족 문제를 겪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인 1400만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지난해 아프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50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78만 명이 이란으로 몸을 피했다. 또 독일에는 18만 명, 터키에

13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있다. 이중 타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만을 살펴보면 터키,

면, 탈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국가도 있다. 한편 탈레반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펼치는 목사가 최근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가정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또 성경 앱 사용자를 체포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탄압에 나서며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패스터 X’로만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의 한 목사가 오지 선교단체 ‘프런티어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FAI)에 직접 전한 현지 사정은 미디어에 알려진 내용보다 매우 절망적이다(URGENT UPDATE: GCM OFFERS NEW STATEMENT FROM AFGHANISTAN'S UNDERGROUND CHURCH).

현재 탈레반은 사살을 목적으로 기독교인 명단을 입수해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가 있는 반

면, 탈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국가도 있다.

한편 탈레반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펼치는 목사가 최근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가정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또 성경 앱 사용자를 체포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탄압에 나서며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패스터 X’로만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의 한 목사가 오지 선교단체 ‘프런티어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FAI)에 직접 전한 현지 사정은 미디어에 알려진 내용보다 매우 절망적이다(URGENT UPDATE: GCM OFFERS NEW STATEMENT FROM AFGHANISTAN'S UNDERGROUND CHURCH).

현재 탈레반은 사살을 목적으로 기독교인 명단을 입수해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3면으로 계속〉



“사람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 보고 변화된다!”

라이프웨이, 2000명 불신자 대상 설문 결과 보도

기독교인은 항상 비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6년 연구에서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는 2000명의 불신자 미국인에게 정확히 그 질문을 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면 경청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Ways to Draw the Unchurched to Your Church).

행함 있는 믿음 볼 때 전도 가능성 높아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의 47%는 누군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소수(11%)만이 가능한 한 빨리 주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한 명의 기독교인 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불신자들 중 4

명 중 1명 미만(23%)은 기독교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거의 5명 중 4명(79%)은 친구가 자신의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9면 동부개혁교회신학교 Th.M(설교학 전공) 개설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center.com | chbookcenter@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지은이 김 덕 수 목사

한남대학교 사학과 (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 (M.A.)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 (D.Min.) 하늘소망교회 담임 '어? 성경이 읽어지네' LA 지부장

논문 STRENGTHENING BIBLICAL INTERCESSORY PRAYER MINISTRY IN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 안에서 성경적 중보기도 사역강화 2019)



The Way

(2월)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길을 타고 안내합니다. 그 길은 '역사'입니다. 성경 목록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성경에 흘러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스케치 합니다. 연속극이 재미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야기가 흘러가고,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연속극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이 드라마와 같이 흘러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그 이해됨을 통하여 성경이 읽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구입처: 미주내 각 기독교서점
저자 연락처: dock.kim@biola.edu

발행인 칼럼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국화꽃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그 꽃들이 뿜어내는 짙은 향기는 '그속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벌써 9월, 가을이다.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핀다. 이 시구도 생각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은 새가 운다고 한다. 그렇다.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한다. 같은 장미꽃을 보고 "이게 뭐야? 꽃에 가시가 있구나...노릇"이라고 이마를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도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니...베리굿!"이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을 갖게 되고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없고"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민20:5). 광야를 "없고"의 관점에서 보았다.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겼고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불행하게 살았다. 그 똑같은 광야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19:4). 하나님의 관점에는 광야는 "없고"의 불행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고" 다니시는 멋진 곳, 안전한 곳, 행복한 곳이라고 알려주신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이 믿음의 감사로 산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행복해하지 않았던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을 형들이 행한 나쁜 행동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땅에 미리 보내어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일 요셉이 전자(前者)로 해석했다면 그 가정에는 피비린내가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후자(後者)로 해석하니 그 가정에는 용서와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다.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스스로 여러 차례 물었던 질문이다. 그대도 이민자라면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를 잘 해석해야 한다. 해석에 따라 나의 이민 생활은 사뭇 달라진다. 그 이유를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American Dream'에서 찾으면 나의 한계와 이 땅의 상황 때문에 결국 좌절이 찾아온다. 나지막이 불리본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American Dream'을 너머 'Kingdom Dream'을 꿈꾸게 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니 좌절은 없다. 나의 한계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움츠리지 않는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미국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웅대하신 계획을 생각하니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다.

거대 위험발생 때 개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NPR, "취도 안 맞는 백신기피자 공통점 '종교와 정치 성향' " 보도

누구나 언제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백신부국'인 미국.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국가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미국인이 백신 접종에 강력 반발하며 소송과 시위를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중 최대 4분의 1 이상이 백신 기피자라는 추정까지 나온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백신 거부자의 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백신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방위적인 압박이 백신 기피자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미언론은 조심스런 관측을 하고 있다(Why Americans have grown more hesitant about the COVID-19 vaccine).

미국의 명문 주립대인 인디애나대, 코네티컷대, 매사추세츠대 등은 최근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 대학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에게만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조지메이슨대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에게 성과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소송을 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으며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근로자마저 백신 접종 지침을 거부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과학계

상당수가 여전히 접종을 미룬 결과다. 일부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음모론의 영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조사결과 백신 기피자에

대어인 폭스뉴스를 애청한다. 갤럽의 최근 조사결과 공화당 지지자 중 46%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백신을 거부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은 지난 3월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가 오히려 복음주의자로부터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정치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백신 관련 음모론을 전파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백신 기피자가 계속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신을 맞은 근로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

백신의무화에 소송 잇달아... 백인 복음주의자가 가장 많이 기피 1905년 천연두 접종 판례... 법원은 기피자 편에 설 가능성 낮아

에서는 이런 현상을 '백신기피(vaccine hesitancy)'라고 부른다.

갤럽을 비롯한 미 여론조사 업체들은 미국인 중 14~26%가 앞으로도 영영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 '강경파'로 보고 있다. 백신이 넘쳐나는데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정체에 빠진 이유가 이들에게 있다.

12일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집계한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71.5%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3일 접종률은 67%였다. 그동안 델타 변이가 미국을 강타했는데도 백신 기피자 중

계는 명확한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종교와 정치 성향이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MR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강력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집단은 개신교 복음주의를 믿는 백인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중 24%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3월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는 26%가 백신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요지부동이다.

복음주의자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으로 꼽힌다. 이 중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보수 미

정치성향에 따라 과학에 대한 신뢰도 격차도 보였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자 중 79%가 과학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45%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가 2017년 조사한 결과 백인 복음주의자 중 22%가 어린이에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하는 데 반대하는 등 백신 불신의 뿌리가 깊었다.

정치성향과 종교, 과학에 대한 신뢰 문제가 얽히면서 백신 기피자의 태도를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를 주겠다는 '당근'을 꺼낸 기업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압력을 넣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이 급작스럽게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꺼내들었다"고 했다.

미 기업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함께 사무실 복귀시기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룬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직원에게 사무실 출근 전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with various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Jenny Rae Le Roux for Governor of California, featuring a portrait and various campaign promises.

난민과 교회위해 ...

(1면에서 계속)
인근 국가 국경은 이미 봉쇄돼 개인 항공편 없이는 탈출은 불가능하다. 목숨을 지키려는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의지한 채 현재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열악한 기후조건과 식량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를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 소식을 알리는 비영리 기독교 매체 SAT-7에 의하면

(SAT-7 CALLS FOR PRAYER AS AFGHAN CHRISTIANS FEAR THE FUTURE), 탈레반은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해 성경 앱 등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면 스마트폰 소지자를 즉시 사살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기독교 탄압을 자행 중이다.
지하교회 관련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조엘 리처드슨 목사는 탈레반이 시골 지역에서 저지르고 있는 무자비한 탄압 소식을 알렸다. 현재 탈레반은 의



만 시골 지역 가정을 뒤지며 기독교 가정을 찾아내고 있으며 만약 기독교인 가정으로 밝혀질 경우 10대 소녀 등 어린 여성들을

“사람들은 우리 말이...”

(1면에서 계속)
그저 불신자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크리스천”처럼 살아간다면 더욱 더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말을 듣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불신자들이 말한 것이 있다:
“나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의 32%는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대면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불신자들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

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31%는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저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지만 불신자들의 4분의 1(26%)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쁨이 태도와 감정에 반영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불의에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학대와 불공정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 4명 중 1명(24%)에 따르면 공적인 정의 문제에 개인적인 믿음이 적용되

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 잘 들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들이 신앙을 사용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지역사회에는 문제가 있으며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5명 중 1명 이상(22%)은 이렇게 하면 듣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의 스타트 맥코넬은 따라서 “당신의 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봉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라고 한마디로 지적해준다.
“저는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할뿐만 아니라, 22%는 크리스천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여러 인종/민족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7년 라이프웨이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교회의 81%가 주로 하나의 인종 또는 민족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13년의 86%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불신자들의 21%가 교회에서 다양성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불신자들은 신앙에 대한 대화에 열려있으며 우리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토론에 훨씬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거대 위험발생 때...

(2면에서 계속)
같은 날 완구회사 해즈브로, 통신회사 AT&T 등도 비슷한 지침을 내놨다. 전날인 11일에는 맥도날드가 합류했다. 미국의 최대 고용주로 꼽히는 유통기업 월마트, 구글과 마이

크로소프트 등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일부 기업은 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사실상 접종 강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건강 또는 종교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백신 접종 여부가 일자리 유지 문제로 이어지면 백신 기피자 중 상당수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인 전망이 나온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이 나오면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완강히 백신을 거부하는 강경파는 끝까지 미접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

다.
법원은 백신 기피자 편에 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미 1905년 미 연방대법원은 중요한 선례가 된 판결을 내놨다. 헤닝 제이콥슨 목사는 천연두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에게 벌금 5달러를 부과하는 매사추세츠 주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존 마셜 할린 당시 연방대법관은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시론

“다시, 오직 주님만이!”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11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The Happiest Girl in Korea'란 제목의 책에는 1900년대 초 조선에서 헌신한 한 여성교사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영혼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인 '미네르바 구타펠'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교사로 1903년에 내한하여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다 1912년 귀국하였습니다. 구타펠은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과 당시 조선의 모습을 여러 선교잡지에 기고하였는데 이를 모아 출판한 책입니다. 이 속엔 9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이 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 옥분이 이야기 2편, 조선의 여자 아기의 입장에서 일인칭으로 쓴 '조선 아기의 생각', 맹인 소녀 이야기, 조선의 왕자 이야기 2편 그리고 전차를 타며 당시 조선의 풍물을 묘사한 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옥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옥분이 처음 병원을 찾은 건 14살이 되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이끌려온 옥분이는 손발에 온통 동상에 걸려 거동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을 하여 거의 1년간을 정성껏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두 손과 한쪽 발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살다가 어느 날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위해 부엌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엌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고된 일과 매질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손가락 발가락에 하나씩 동상에 걸려 힘겨운 삶의 무게에 고통마저 더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상은 더욱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때서야 옥분이를 데리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와 '가능한 빨리' 나서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부탁하곤 떠났습니다.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자 선교사들은 병원 내에 비록 싸구려 장식품 몇 개뿐이지만 정성껏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분이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봐주던 선교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새해가 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갈 예정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본국에 되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선교사에게 부탁합니다. “옥분아, 사람들이 옥분이를 모를 텐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지?”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선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는 이곳에 온 후론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째는 크리스마스트리요.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했니?” “아뇨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했더니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삼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가.” 4년 후 18세가 된 옥분이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따은글).
그동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심코 살아왔던 저희들의 마음을 콧속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한 삶의 감격과 진동과 울림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과 교회에는 “바로 주님의, 바로 주님으로 인한, 바로 주님 때문에”가 점점 멀어져 희미해져 잃어버린 지도 모르는 채 매일을 삽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없이 세상에 끌려 다닙니다. 이젠 그 울가미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하신 처음 질문인 “Where are You?”(창3:9)를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직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수정 해야 합니다. 그대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환란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서서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 가을에는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과 교회가 다시 무릎 꿇어야 할 제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풍성한 역사가 체험되는 감사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0차 디퍼런스 공개 세미나

**You are not wrong. You are just Difference!
디퍼런스, 바로 당신이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Difference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한 내면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디퍼런스는 기존의 심리도구와는 달리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이해 도구입니다.

디퍼런스의 유익

- 디퍼런스를 알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해심이 향상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진로 및 인생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제10차 공개 세미나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미국 서부 시간)
참여 방법: 온라인 실시간 zoom 화상 세미나
회의 ID: 852 9071 6995
암호: 261930
문의: 562)822-3078

*공개 세미나 참석자 중 초급 과정 등록하시는 분께는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지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기다림(창16:1-16)찬93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그 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약1-2 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함은 '말조심(행3:1~12)',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행함(약3:13-18), '육신 제어 및 비방을 삼가함(약4장)' 등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 믿음의 증상'은 '인내(약5:7-11)'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은 시원한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길 믿고 기다립시다.

화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라(창17:9-14)찬257장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성생식기의 겹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종교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롬 2:28-29).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도 할례 받은 자의 표식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표시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표시 나는 성도'가 됩시다.

수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창18:16-33)찬321장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창 18:20).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창18:32; 창19:23-29). 비극은 '세상 에 죄악과 악인들이 넘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슬픈 비극은 '거룩하게 구별된 의인 10명

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심판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 기 때문(창6:1-2)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성도들이 거룩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여 거룩을 살아봅시다.

목 농담으로 여겼더라(창19:12-22)찬546장

'농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차하 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웃다, 비웃다'라 는 뜻입니다. 웃는 사위들은 웃을 통해서 들 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사위들의 태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 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 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 게 여길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중하 게 받으십시오.

금 신실하신 하나님(창21:1-7)찬393장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 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그마치 100 세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 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께로부터 아들을 낳은 후 비로소 웃으며 기뻐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25년 전이었습니

다. 25년 동안 사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멈췄고 그의 삶에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 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 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 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 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토 여호와 이레는...(창22:1-19)찬407장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와 산에서 (대속 의 제물이)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그 대속 의 제물이 대적(사단마귀)의 성문을 차지하 고 그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 의 십자가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셨 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삽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5)

위기의 순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세요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계속해본다. 인생의 최 대 위기의 순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고 지난 호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가 거둔 신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진실 되고 믿음 있고 거둔 신양인 것처럼 행동한다. 반석 위의 집에 대한 주님의 예화는 바로 이를 의미한다. 평소에는 두 집에 똑같이 아름답다. 정원이 있고, 집안에 꽃향기가 은은하고, 즐겁게 담소하는 정원의 모습은 두 집에 똑같이 보인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위기의 순간 두 집의 운명은 기초공사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된다. 한 집은 무너지는 반면, 다른 집은 거뜰하게 버틴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토대, 기초의 차이이다. 반석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모래위에 집 을 지었는가 하는 차이이다. 이미 하나님은 느브갓네살이 꿈(단2장)을 통해 이를 설명해 주셨다. 거대한 신상,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 은으로 만든 가슴 부분, 배와 넓적다리는 동 으로 종아리는 철로 웅장하게 만들어진 신상,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신상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로 하나의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치

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까? 세 가지 이유 가 있다.

첫째, 근심은 스스로를 무신론 자로 만들고, 아 비 없는 고아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근심은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 시고,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든다. 곧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며 그분이 자녀를 사랑 하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6,000여 가지의 축복과 약속 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 그런데 근심은 이러한 하나님 약속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 아닌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를 가르친다.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빌 4:19)." 빌립보서 4:19은 바로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희갑 목사 (아주사피사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예배와 찬양 토대가 튼튼하면 위기의 순간에 절망 안해

니 그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다니엘은 고백한다(단2:33-34). 바로 기초(신상의 발 부분)가 튼튼하 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필자는 바로 그것을 영적 습관(평소 하던 대로, 단6:10)이라고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습 관을 80평생 쌓아왔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에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영적 비결이 되어왔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기업가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행복은 주지는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토대 가 튼튼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어 많이 안타깝다. 바로 토대가 튼튼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위기의 순간 근심하지 않고 찬송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자 굴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 으라는 조서에 어인을 찍은 다리오왕은 정작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져진 이후부터 근심과 걱정 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니엘 6:18절을 읽어보라. " 왕이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나라..." 사자 굴속에 있었던 평안했던 다니엘 과 안절부절 못하고 뜬눈으로 잠을 세운 왕을 비 교해보라. 결국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마태복음 6:31-34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다. 둘째로 근심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만약에 근심 을 함으로 상황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근심은 필요 없는 걱정, 무모한 시간낭비라는 것 아 니겠는가?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자. 지구상 피조 물 중에 유일하게 근심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 이다. 그렇다. 바로 근심은 죄와 함께 우리 속에 침 잠하는 불신앙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근심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심은 마치 우리가 안락의자에 앉아 열심히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부려 보지만 결국 아무 진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마는 무용한 시도에 불과하다. 주님의 훈계를 들어보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마6:27). 결국 근심과 염 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행하는(마6:30) 불신앙 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그는 근심과 걱 정이 그의 처지를 한 치라도 변화시켜줄 수 없 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자 굴속에서 그는 찬송 하고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 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다니엘 6:23에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한다. "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 배와 찬양이다. hlee0414@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한

대뉴욕지구

2021
할렐루야
로큰롤

부흥회 대회

Hallelujah Greater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강사

양창근 선교사

9.11(토)-12(주일)

토요일 7:30PM, 주일 5:00PM

장소: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시무)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대회장

문석호 목사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부대회장

김희복 목사

백달영 장로

이춘범 장로

목회자 세미나

- 일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뉴욕대한교회 (김전 목사 시무)
3501 150th Pl,
Flushing, NY 11354

차량 운행 안내

- 시 간 : 집회 시작 1시간 전, 30분 전 출발
- 출발장소 :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사이드 삼원각

*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가운데 대회가 진행됩니다.

• YouTube 온라인 생방송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Fax. 718-279-5838
Email: nyckcg@gmail.com, www.nyckcg.org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라

세상의 위기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도 팬데믹이 아닙니다.
 강단의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 시대는 설교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이 시대는 설교의 영광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눅10:16a)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의 영광을 회복할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34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개혁주의 목회자를 배출해 온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으로 하는
 Th.M 과정을 개설합니다.
 오셔서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공개강좌: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00-오후 3:00
 (점심과 선물 제공)



류응렬 목사

2021년 가을학기 안내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11월 29일(월)
 장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퀸즈장로교회/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과목: [설교의 본질, 디자인과 소통] 류응렬 목사, 김성국 목사, 장성철 목사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1(해석)] 이윤석 목사
 [강해 설교학] 김바나바 목사

자격: M.Div 졸업자
 과정: 2년 10과목 (총 30학점 / 6학점은 졸업 논문 또는 특별수업)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음)

문의: 학감)정기태 목사 917-733-7387, 신학교 사무실: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